

‘하락세’ 팻 딘, KIA 딜레마 떠오르나

시즌 16경기서 96%이닝 5승5패 평균자책점 4.76·6월 이후 부진 좌완으로 140km대 중반 투구 불구 확실한 변화구 승부구 無 ‘단점’



우승에 도전하는 KIA에 진지한 고민이 떠올랐다. 외국인 투수 좌완 팻 딘(28)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7월의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팻 딘은 5월말까지 시즌 16경기에서 96%이닝을 던지며 5승5패 평균자책점 4.76을 기록 중이다. 5월 인천 SK전에서 시즌 6승을 노렸으나 오하려 휴런 세 방을 얻어맞으며 3이닝 동안 8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팀 타선이 팻 딘의 패전요건을 지원해주지 못했지만 여러모로 만족스럽지 않은 피칭이었다. 이날 경기 피안타율은 무려 5할2푼6리나 됐다. 팻 딘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비교적 안정적인 커맨드를 가지고 있다는 영입 당시 설명은 어느 정도 맞는 듯 보였다.

3~4월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은 3.18, 5월 5경기에서의 평균자책점은 3.00을 기록했다. ‘외인 에이스’까지 기대하지는 않은 영입입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수치였다. 그러나 6월부터는 이 숫자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팻 딘은 6월 5경기에서 29%이닝을 던졌으나 1승3패 평균자책점 6.44에 머물렀다. 6월 이후 가진 6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는 단 1번밖에 없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둔 6월 29일 광주 삼성전(8이닝 1실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당시 삼성 타자들이 일찌감치 전의를 상실한 경기였다.

6월 피안타율은 3할3푼6리로 높아졌고 삼진/볼넷 비율도 나빠졌다. 좌완으로서의 준수한 140km대 중반의 공을 던지지만 확실한 변화구 승부구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제구마저 몰리며 장타를 허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말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것도 아니니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팻 딘의 피안타율(.321)은 규정이닝을 소화한 투수 중 가장 높다. 피장타율(.501)도 마찬가지다. 피출루율과 피장타율의 합인 피OIS는 0.867로 역시 리그에서 최악이다. 6월 이후 평균자책점은 8.07, 피안타율은 3할6푼3리, 피OIS는 1.002에 이른다. 이대로 가면 후반기 팀 선발진에서 일익을 담당해줄지 조차가 불투명하다. 피장타율의 수직 상승도 심상치 않다.

중위권 정도의 팀이라면 반등을 기다려 줄 수도 있다. 여차피 대체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그보다 더 나은 투수를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KIA라면 사정이 다르다.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KIA는 정규시즌은 물론 포스트시즌까지 내다봐야 하는 팀이다. 단기전에서 선발투수의 비중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새 외국인 선수를 포스트시즌에서 쓰려면 7월 31일 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신태용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의 선발 기준 ‘소속팀 출전 없어도 OK’

새 얼굴 선발 당분간 힘들 듯

소속팀 출전 여부와 리그의 수준차.

A대표팀 사령탑 부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태용 감독은 향후 선수 선발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감독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국가대표팀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는 감독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선발을 돕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이다. 최종 결정은 감독의 몫이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이 흐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를 유지하려 애썼다.

신 감독은 “슈틸리케 감독님은 소속팀에서 출전을 하지 않으면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경기에 못 나가도 나와 맞는다면 뽑을 것이다. 감독이 갖고 있는 전술이 있기에 (부합한다면)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새 얼굴의 합류는 다음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신 감독이 밝힌 첫 번째 원칙은 해외파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차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인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흥명 감독은 해외파 특히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A대표팀 감독이 점차 자국리그 선수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불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신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K리그의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 정 안 된다면 (엔트리) 모두 K리그 선수들로 갈 수도 있다”면서 “K리그, J리그, 중국리그, 중동, 유럽 등 이길 수만 있다면 (어디서 뛰든) 좋은 선수를 뽑아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발 과정에서 내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K리그 소속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속팀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들의 선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신 감독은 최근 1년 사이 올림픽 대표팀과 U-20 대표팀을 거치면서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유망주들을 성인 대표팀에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은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이다. 9월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두 경기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가능할 중요한 일전이다. 한국 축구의 명운이 걸린 혈투를 앞두고 실력을 하기에 부합스럽다는 것이 신 감독의 설명이다.

신 감독은 “당장 유망주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선수를 발굴하기 보다는 두 경기 승리에 모든 것을 맞추겠다”면서 “월드컵에 진출한 뒤 치러질 평가전에서는 쓸 수 있는 선수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의 경우 부임 초 뉴시스

신태용 감독 ‘모험보다 안정’ 택하다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의 선택은 ‘모험’ 보다는 ‘안정’이었다.

후후 상황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공격 축구로 회귀할 여지는 있지만 다가올 최소 두 경기에서는 뒷문 단속에 치우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은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이다. 9월5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 최종예선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그의 몫이다.

민일 이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본선행에 성공한다면 구세주 등극과 함께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지만 미끄러지면 계약은 끝으로 해지된다.

신 감독은 U-20 축구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사령탑을 거치면서 공격 축구라는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각인했다. 지난 5월 포르

투갈과의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는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A대표팀 사령탑으로 신분이 상당 조정되면서 상황 또한 바뀌었다.

신 감독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과 U-20 월드컵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지만 남은 두 경기는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으로 이기더라도 두 경기는 무조건 실점 없이 한 골이라도 넣어야 한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두 경기를 이기면 한국은 자력으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전이 본인의 지도자 인생은 물론 한국 축구를 위한 승부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신 감독의 생각이다.

오승환, 시즌 7번째 피홈런...1이닝 1실점 기록

지난해 79경기 5개 비 올해 36경기서 7개째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6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6-8로 뒤진 9회초 등판, 솔로포를 허용해 1이닝 1실점을 기록한 뒤 더그아웃에서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마무리 투수 자리에서 밀려난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또 다시 홈런을 얻어맞았다.

오승환은 6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6-8로 뒤진 9회초 등판해 1이닝 2피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데뷔 이후 전 경기에서 79%이닝을 소화하면서 5개의 홈런만을 허용한 오승환은 올 시즌 36경기에서 38%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벌써 7번째 홈런을 얻어맞았다.

오승환은 지난달 28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시즌 3번째 불펜세이브를 기록한 이후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 등판하고 있다.

2일 워싱턴전과 5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쳤던 오승환은 이날 홈런을 얻어맞았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58에서 3.72로 높아졌다.

출발은 좋았다. 오승환은 첫 상대 마르셀 오수나에게 시속 98마일(약 150km)짜리 직구 3개를 던져 3구 삼진으로 잡아냈다.

하지만 후속타자 저스틴 보어에게 중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직구 2개로 카운트를 잡은 오승환은 볼카운트 1B2S에서 4구째로 커브를 던졌다가 홈런을 허용했다.

오승환은 이어 J.T.리얼무토에게 5구째 슬라이더를 공략당해 우전 안타를 맞았다.

오승환은 데릭 디트리치에게 시속 92마일짜리 직구로 중견수 뜬공을 유도했다. 중견수 토미 팝이 2루로 뛰던 리얼무토를 잡아내면서 오승환은 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마쳤다.

세인트루이스는 9회말 추가점을 뽑지 못하면서 마이애미에 6-9로 졌다. 2연패에 빠진 세인트루이스는 44패째(40승)를 기록했다.

황재균, 디트로이트전 1안타 1타점...6경기 연속 출루

시즌 타율 0.278·샌프란시스코, 5-4 진삼승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황재균은 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디트로이트전에서 안타없이 볼넷으로만 한 차례 출루한 황재균은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뽑아냈다. 황재균의 데뷔 이후 세 번째 타점.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가 5-0으로 앞선 4회 2사 1, 3루의 찬스에서 중견수 뜬공을 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7회 무사 1루에서 유격수 앞 땅볼을 쳐 1루 주자를 아웃시키고 출루한 황재균은 후속타자 브랜던 크로포드가 병살타를 쳐 더 이상 진루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디트로이트에 5-4로 진삼승을 거뒀다. 샌프란시스코는 34승째(52패)를 수확했다.



현대캐피탈 리베로 정성민 트레이드로 대한항공 이적

현대캐피탈 리베로 정성민(29)이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는다.

두 팀은 6일 정성민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캐피탈이 정성민을 내주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의 2017~2018시즌 신인선수 2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양도받는 방식이다.

김동혁의 입대 리베로 라인에 구멍이 생긴 대한항공은 백광현-정성민 체제로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은 “백광현이 지난 시즌 잘 버텨주며 많이 성장했지만 전체 경기를 맡기에는 경험이 적다. 정성민을 통해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오현 플레임코치와 박종영, 신동광으로 이어지는 리베로진을 구축한 현대캐피탈은 신인 지명권을 받아오면서 리빌딩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캐피탈 최태용 감독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팀과 선수를 위해 진행한 일”이라며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해 준 정성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기대 출신의 정성민은 2010년도 신인 드래프트 당시 LG손해보험에 1라운드 3순위로 지명된 V리그 최초로 1라운드 선발 리베로다. 훌륭한 신체조건과 뛰어난 반사 신경을 갖췄다는 평가다.